

行政大學院 教育의 評價

서울대학교 行政大學院 敎務課

1. 調査目的, 對象 方法

行政大學院이 서울대학교에 1959년에 創設된 以來 이제 10년이 되어가고 있으며 그間 學界에나 實務界에나 공헌한바 크다고 생각되는 反面 여러가지 難關에 많이 봉착하였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단 새 機關, 制度로서 成功을 거두었다고 보나 이제 그간의 業績, 經過를 反省, 評價해 보는 것이 앞으로의 發展을 위해서 특히 意義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더구나 創設期 부터 최근까지 우리 自身의 力量 不足으로 創設에 主動的인 役割을 한 美國側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왔으며 또한 敎授들도 各自 自己 擔當科目의 準備에 바빠 行政大學院으로서의 새 制度에 큰 關心을 기울이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이 機關의 指導者인 院長들도 行政學專攻者가 아니었으므로 어려운 점이 많았었다.

그러나 이러한 要件은 이제 모두 清算, 解決되고 이제는 行政大學院의 全員이 行政大學院의 發展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關心을 쏟고 精力을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의 姿勢와 能力을 充分히 가졌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가추어진 姿勢와 能力을 行政大學院 發展의 方向으로 利用하여야겠는데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이 發展目標 方向의 設定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設定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이 지난 몇 년간에 行政大學院에서 敎育을 받고 나간 卒業生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이러한 調査를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一部卒業生과 二部卒業生은 그 性格이 다르므로 質問의 內容도 달라하였다. 그러나 유감인 것은 二部の 경우 質疑者를 우송한 결과 그回收率이 10%도 안되어 全然 統計的으로 처리할 의의가 없

다고 생각되므로 여기서 一部의 경우에 限해서 整理해 본 것이다.

一部卒業生에 대한 質疑에서는 주로 그들이 行政大學院에서 받은 것과 卒業後에 느낀 것 間의 差 또는 이에 대한 意見과 또 하나는 學校를 卒業한 후에 社會, 主로 行政機關에서 일한 것 經驗에 대한 印象을 물어 물려고 했다. 前者의 理由는 行政大學院의 敎育內容에 feedback의 機能을 기도해 본 것이고 後者の 경우는 政府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의 事前 準備를 시켜 보자는 의도에서 그와 같이 한 것이다.

이러한 目的에 따라 一部卒業生中 勤務處가 政府 機關으로 생각되는 사람만 선택하여 본즉 80명이 되어 質疑書를 우송한 결과 回送되어 온 것이 40명이 되어 50%의 回收率을 얻어 적은 感이 있으나 整理해 본 것이다.

2. 履 歷

(1) 年 齡

37歲~2	34歲~36歲~5
31歲~33歲~13	28歲~30歲~15
25歲~27歲~5	

(2) 出生地

大都市~9 小都市~13 農村~18

(3) 學部專攻

行政學~13	法 學~7
政治學~7	經濟學~6
敎育學~4	人文科學~2
海運學~1	

(4) 入學年度

59~60年度~9	61~62年度~13
63~64年度~15	65 ~ 2
不記載 ~1	

(5) 經歷—勤務處

- 商工部~5. 社部~1. 財務部~3.
- 公務部~2. 務部~1. 經企院~1.
- 總務處~2. 通部~7. 遞信部~4.
- 서울市~2. 會~3. 國營企~2.
- 共 他~7.

(6) 經歷—職新

- 主 事~16. 務官~15. 書記官~1.
- 其 他~ 8.

以上の 履歷面을 통해서 발견되는 몇 가지 特徵을 지적한다면

(1) 이들의 大部가 中産以上の 出身일 것이 豫想되는데 出生地는 農村出身이 46%를 占하고 있어 他國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農村, 中小都市 出身이 역시 自己의 實績으로 政府에 들어가 權力을 장악해 보겠다는 의욕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 한다.

(2) 역시 法學을 위시한 社會科學專攻者가 入試에 있어서는 우세를 하고 있지 않으나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3) 入學年度에 있어서는 大部分이 初創期에 속하고 있으므로 政府의 의견에도 學校의 初創期의 어려운 事情이 反映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 經歷에 있어서는 비교적 근무처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職級에 있어서는 主事와 事務官級이 골고루 나누어져 있다.

3. 態度, 行動面

(1) 任命前後의 認識變化

여기서 알아 볼려고 하는 것은 任命되기 前에 豫想하였던 것과 實際 任命된 후의 認識間의 差를 알아 볼려고 한 것이니 目的은 對人關係에 있어서 너무 지나친 豫想外의 關係에 當황하지 않게 함과 同時에 實態를 파악해 보려고 한 것이다.

內容으로서는 여러가지 對人關係中 가장 빈번히 맺어지며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다섯 가지 關係를 뽑아 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上官에 對한 態度

- a. 보다 優越. 不平等~22.
- b. 同一 ~ 4.
- c. 보다 獨立. 平等的~10.

- d. 不記載 ~ 4.

(2) 同僚間

- a. 보다 派閥시기 ~22.
- b. 同一 ~ 4.
- c. 보다和睦親密 ~10.
- d. 不記載 ~ 4.

(3) 部下에 對한 態度

- d. 보다 權威的. 利己의~16.
- b. 同一 ~ 8.
- c. 보다 平等的, 溫情的~11.
- d. 不記載 ~ 5.

(4) 政治人(政黨人, 議員)에 對한 態度

- a. 보다 蔑視 ~14.
- b. 同一 ~14.
- c. 보다 尊敬 ~ 7.
- d. 不記載 ~ 5.

(5) 業者와의 關係

- a. 보다 不公正 ~12.
- b. 同一 ~12.
- c. 보다 公正 ~10.
- d. 不記載 ~ 6.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任命前에 豫想하였던 것과 各項 다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다 具體的으로 檢討하면

① 豫想하였던 것하고 크게 다르게 느껴진 것은 上官에 대한 태도, 同僚間의 태도, 部下에 대한 태도, 業者와의 關係, 政治人에 대한 태도의 순으로 되어 있으며

② 豫想하였던 것 보다 바람직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上官에 대한 태도, 同僚에 대한 태도, 部下에 대한 태도, 政治人에 대한 태도, 業者와의 關係로 나타나 있으며

③ 豫想하였던 것 보다 바람직 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部下에 대한 태도, 上官, 部下, 業者와의 關係등이 同一하며 政治人에 대한 태도가 끝으로 되어 있으며

④ 任命 前後에 變化가 적은 것은 政治人에 대한 태도, 業者와의 關係, 部下에 대한 태도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두가지는 극히 그 數가 적다.

以上の 結果로서 우리가 파악 할수 있는 것은 一部生이 行政府에 들어가기 前에 公務員으로서 맺어질 對人關係에 있어 생로운 인식이 必要하리라고

생각된다.

(2) 初任後의 첫마디

公務員으로 任命된 直後에 上官아닌 同僚로 부터 어떠한 말을 처음 들었느냐 하는 것이며 여기에 上官 아님. 同僚라고 한 것은 上官의 경우는 언제나 公式의 言 말을 할 것으로 豫想되어 이러한 것 代身 同僚들이 非公式의 言 말이 이들의 士氣의 정도를 하는데 도움이 크며 새로 발을 디려 놓은 사람에게 주는 영향, 인상이 특히 크다고 생각되어 조사해 본 것이다.

- (1) 同苦同樂 ~3
- (2) 熱心 ~3
- (3) 要領있게 處理~2
- (4) 融和되라~4
- (5) 自己 일로 알라~1
- (6) 認定을 받고 있다는 얘기~1
- (7) 깨끗지 않은 참신한 印象~1
- (8) 官廳이란 그런것~1
- (9) 複雜히 生覺달라~1
- (10) 재미 많이 보겠다~1
- (11) Morale의 저하~1
- (12) 現職(公務員)을 잘못 擇했다~9
- (13) 企劃分野는 不滿이 많은것 같다~1
- (14) 不記載~11

조사하기 전에 豫想한 바이지만 역시 新入者에게 士氣를 높여주는 것 보다는 低下시키는 첫 마디가 더 많을 것으로 되어 있어 學校에서 큰 포부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에게 日할 의욕을 低下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이 예상된다.

(3) 初任後의 當황

여기서는 行政經驗 없이 學校에서 工夫하다 들어 가서 새로운 낯서른 곳에 가서 當황하게 되는 일이 여러가지 있을 것이 예상되어 역시 이러한 일에 대한 예비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하여 質問을 해 본 것이다.

- (1) 業務把握~9
- (2) 官僚的 態度~7
- (3) 起案文 作成~5
- (4) 不記載~4
- (5) 많은 業務量~4
- (6) 對人關係~2

(7) 公文書書式~2

(8) 實務經驗不足~1

(9) 기대에 어긋남~1

(10) 民法, 商法の 不知~1

(11) 自己能力에 맞지 않은 업무~1

(12) 自己意思行動이 上官에 잘못 誤解했을때~1

(13) 理論과 實際와의 差異의 現實化方法~1

內容은 여러가지로 호터져 있으나 빈도가 많은것 中 起案文 作成이나 公文書作成 등은 實務에 관한 것으로서 學校教育의 일환으로서 교육할수는 없으나 Intern 期間中에 간단하게 이에 대한 訓練을 하는 것이 圓滑한 實務에의 轉換을 위하여 希求된다.

(4) 適應期間

學生의 身分으로서 公務員이라고 하는 새로운 身分으로의 轉換, 즉 學校라고 하는 教育機關에서의 分位기에서 行政機關이라고 하는 國家機關의 分位기에 적응하는 期間이 얼마나 一般的으로 소요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 불려고 한 것이다.

1~3個月~13

4~6個月~16

7~9個月~1

10~12個月~4

13個月以上~3

不記載 ~3

大多數가 6個月以內에 그 기간을 잡고 있으므로 이 기간이 新入者에게는 將來의 長期間에 걸친 公務員生活에 있어 가장 重要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本人은 물론 이들의 監督者인 上官은 이點에 특히 注意와 指導가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5) 士氣變化

처음으로 任命되고 난 후에 그들의 士氣가 어떠한 方向으로 變化했으며 그 時期와 原因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이 賢明할 것 같아서 質問을 해 본 것이다.

(1) 傾向

a. 上 昇~9

b. 不 變~1

c. 低 下~25

d. 不記載~5

(2) 期間

1~3個月~5

4~6 // ~16

7~9 // ~2

10~12 // ~6

13個月以上~6

不記載 ~5

(3) 低下 原因

a. 興味없는 事務로~10

b. 計劃(現狀)과 現實差異~4

c. 情實任用~4

d. 差別대우~4

e. 業務研究 機會부족~3

f. 給與不足~3

g. 不記載~1

h. 기대의 失실~2

i. 發展性없음 微微한 自己位置~2

j. 權威確立 困難~2

k. 指導意思가 없음~2

l. 不安感~1

m. 豫算不足~1

n. 退勤遲延~1

(4) 上昇 原因

a. 上官의 器定~8

b. 重要業務 부과~3

c. 昇進~1

d. 親舊들과의 應答~1

극히 유감인 것은 多數가 低下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의 原因을 고찰하는 경우 自己들의 能力은 더 크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맞지 않는 즉 能力以下の 일을 맡겨 일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데 있어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改善의 餘地는 많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今晨는 이들의 上官에게 이러한 事實을 傳하는 것이 必要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原因으로 인하여 士氣變化를 가져오는 期間이 역시 처음 6個月로 되어 있었음은 上述한 適應期間과도 一致되어 더욱 重視視되어야 할 것 같다.

이와 反對로 上위의 경우는 原因이 人間關係에서 흔히 이야기 하는 上官의 인정 및 士氣低下의 경우와는 反對로 能力에 맞는 일을 擔當했을 때도 나타나고 있다.

(6) 成功的 態度

여기서 알고져 한 것은 公務員으로서 成功하는데

있어 어떠한 것이 第一 重要하다고 생각하느냐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學校에서는 實力爲主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實際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못한 것이 現實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켜 왔으나 이들이 實際 行政府에 들어가서 느낀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1) 實力 ~21

(2) 背景 ~16

(3) 適當히 適應(要領)~9

(4) 謙遜한 人品 ~7

(5) 社交性 ~6

(6) 人間關係 ~6

(7) 上官에 잘 보임 ~6

(8) 正確性 ~5

(9) 判斷力 ~4

(10) 財力 ~4

(11) 積極性 ~3

(12) 아부 ~2

(13) 手腕 ~2

(14) 士氣昂揚 ~1

(15) 理想과 現實의 調和~1

(16) 順從 ~1

(17) 實踐力 ~1

(18) 行政發展의 適應行態~1

(19) 不記載 ~2

여러 項目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그 內容을 大別해 보면 實力, 背景, 對人關係 등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그간의 比重은 큰 差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즉 實力으로 간주되는 것 까지 합하면 (1), (8), (9) 등이 分明하다고 보이며 합해서 30으로 되어 있으며 背景으로 간주되는 것은 (2), (10) 등이며 합해서 20이며 對人關係로 간주되는 것은 (3), (4), (5), (6), (7) 등이며 합하면 25로 計算된다. 差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實力이 第一이고 다음의 對人關係 끝으로 背景이 되어 있음은 多幸한 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7) 韓國 行政 改善上의 애로

韓國 行政 發展上의 애로가 무엇이나 하는 것에 關하여 우리나라의 많은 學者가 그간 論議, 言及을 해 왔는데 卒業生이 實際 行政機關에 들어가서 느낀 것은 무엇이겠으며 學者들이 이야기 해 오는 것

하고 얼마나 다른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檢討하기 위해서이다.

- (1) 權威意識 ~14
- (2) 消極性 ~14
- (3) 情實性 ~ 8
- (4) 예속적 思考 ~ 8
- (5) 派 閥 ~ 7
- (6) 出世主義 ~ 3
- (7) 民主意識缺如 ~ 3
- (8) 아 침 ~ 3
- (9) 官權行使 ~ 3
- (10) 自己우선주의 ~ 3
- (11) 生活여건 ~ 3
- (12) 形式化 ~ 3
- (13) 政治시녀 ~ 2
- (14) 不信感 ~ 2
- (15) 非正常 變則에 對한 저항력의 미약 ~ 2
- (16) 권모술수 ~ 2
- (17) 鎋黃金時代향수 ~ 1
- (18) 部下의 建議복살 ~ 1
- (19) 流動性的 不足 ~ 1
- (20) 不 信 ~ 1
- (21) 사치정화 ~ 1
- (22) 知識망상증 ~ 1
- (23) 不記載 ~ 2

여러 가지 多岐의으로 나와 있으나 결국 빈도상으로 보아 위로 부터 5 項目에 集中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의 權威意識과 (4)의 隸屬的 思考는 同一性的의 關係關係라고 생각되며 (2)의 消極性도 類似한 性格이 많다고 본다. 결국 세 가지 다 上下의 公務員들이 各自의 의견을 몇몇히 排斥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結果에 있다고 생각된다. 의견이 있어도 表現을 못하는 큰 理由는 물론 上官의 權威主義의 態度에 기인하는 바 크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다음은 情實性, 派閥이라고 볼 수 있다.

4. 知 識

行政人으로서 요구되는 資格으로서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二大分하여 그들의 態度 및 知識에 焦點을 두고 質疑하기로 하였으며 3에서 態度에 關한 것은 끝내고 여기서는 行政人으로서 必

要로 하는 知識에 關하여 묻기로 하였다.

(1) 有益科目

여기서 알고져 한 것은 行政大學院에서 배운 科目中 現在 行政을 하는데 가장 有益하다고 생각되는 科目名을 記入케 한 것이었으며 이의 意圖는 行政大學院 教科目再編成에 도움이 되게끔 하고져 하는데 있었다.

- (1) 人事行政 ~15
- (2) 組織管理論 ~14
- (3) 財務行政 ~12
- (4) 行政法 ~ 9
- (5) 調查方法論 ~ 8
- (6) 經濟關係 ~ 8
- (7) 會計學 ~ 7
- (8) 行政學 ~ 6
- (9) 統計學 ~ 5
- (10) 英 語 ~ 3
- (11) 人間關係論 ~ 3
- (12) 韓國政府論 ~ 2
- (13) 事務管理論 ~ 2
- (14) 國際行政 ~ 2
- (15) 公共關係論 ~ 1
- (16) 地方自治 ~ 1
- (17) 原書講讀 ~ 1
- (18) 第2外國語 ~ 1
- (19) 名科目Seminar ~ 1
- (20) 단편적인 論文 ~ 1
- (21) 政治行態 ~ 1

結果는 상당히 多樣的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처음부터 行政大學院에서 배운 科目에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 影響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點을 떠나서 行政法, 經濟關係가 많이 지적되었음은 많은 시사를 주며 이러한 것이 行政大學院의 教科目 改編에 昨年에 고려되었음은 多幸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2) 理論과 實際 不一致科目

一般的으로 우리나라의 大學에서 가르치고 있는 內容이 現實과 유리된 것. 또는 外國의 것을 그대로 直輸入해온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學校에서 열심이 배워도 그것이 實務에 當面했을 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아 이의 事實把握을 위

하여 이러한 質問을 해 본 것이다.

- (1) 人事行政 ~ 17
- (2) 組織管理 ~ 5
- (3) 經濟學 ~ 3
- (4) 政策決定過程(下意上達) ~ 3
- (5) 行政學 ~ 2
- (6) 調查方法論 ~ 1
- (7) 統計學 ~ 1
- (8) 對民業科 ~ 1
- (9) 통솔方法 ~ 1
- (10) 外國制度 ~ 1
- (11) 業務處理等技術的面 ~ 1
- (12) 理論不行 ~ 1
- (13) 外務行政 ~ 1
- (14) 立法府와 行政府의 力學關係 ~ 1
- (15) 大部分 ~ 1
- (16) 下意上達上的 諸般 channel ~ 1

흥미 있는 것은 人事行政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의 人事行政自體가 法令, 制度的規程상의 유리가 제일 심하다고 하는데도 있으며 즉 公務員이 되기 전에는 그래도 實績이 상당히 높히 評價될 줄 알았는데 實際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못하며도 원인이 있지만 初期의 人事行政의 內容이 美國적인 것에 치중되었으며 이것이 우리의 것과 差가 심한데도 있다고 보아야 하며今後 많은 修正이 요청된다고 생각된다.

(3) 事前準備

公務員이 되기 전에 態도와 知識面에서 어떠한 것을 사전에 알고 준비하고 들어가는 것이 희구되는나 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것을 在學生에게 알리는 것이 그들의 成功的인 公務員生活을 위해서 요구된다고 생각하여 質問을 해 본 것이다.

(1) 態度

- ① 人格(禮)단 ~ 14
- ② 誠實(忍耐)性 ~ 8
- ③ 勞働(順應) ~ 5
- ④ 堅持와 寡黙 ~ 4
- ⑤ 目的意識 ~ 4
- ⑥ 實踐力 ~ 4
- ⑦ 融通性 ~ 4
- ⑧ 上官에 對한 階層意識(禮儀) ~ 3

- ⑨ 判斷力 ~ 3
- ⑩ 能力 ~ 3
- ⑪ 探究心 ~ 3
- ⑫ 權威意識배제 ~ 2
- ⑬ 矜眼目 ~ 2
- ⑭ 치밀한 性格 ~ 2
- ⑮ 權威的인 性格表現方法研究 ~ 2
- ⑯ 時代感覺敏感 ~ 2
- ⑰ 自信 ~ 1
- ⑱ 圖志 ~ 1
- ⑲ 참신한 印象 ~ 1
- ⑳ 經驗 ~ 1
- ㉑ 體質改善 ~ 1

(2) 科目

- ① 行政學 ~ 13
- ② 經濟學 ~ 10
- ③ 外國語 ~ 7
- ④ 法學 ~ 6
- ⑤ 統計 ~ 4
- ⑥ 希望部處와 關聯科目 ~ 4
- ⑦ 政治學 ~ 3
- ⑧ 行政實務 ~ 3
- ⑨ 行政法 ~ 3
- ⑩ 開發行政 ~ 2
- ⑪ 經營分析 ~ 2
- ⑫ 調查方法論 ~ 1
- ⑬ 社會學 ~ 1
- ⑭ 全人教育 ~ 1

態度面에서 反映된 것을 보면 多樣성을 띠고 있으나 內容을 分類해 보면 對人關係에 관한 것이 主가 되고 있으며 이에 속하는 ① 人格圓滿, ③ 勞働氣順應, ④ 堅持와 寡黙 ⑦ 融通性, ⑧ 上官에 對한 階層意識, 등은 모다 中庸, 모가 淸난다는「組織人」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보아 自由로운 學生身分으로 부터 行政人的 身分으로 轉換하는 경우 이러한 태도가 특히 우리社會와 같이 前近代的인 要素가 불식되지 않고 많이 남아 있는 곳에서는 當然히 要求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높이 評價할 것은 ②의 誠實性, ⑤ 目的意識, ⑥ 實踐力 ⑨ 判斷力, ⑩ 能力, ⑪ 探究心, ⑬ 矜眼目등이라고 볼수 있다. 이러한 希望의이며

發展의인 태도가 요구된다고 지적한 것이 많음은 祝賀해 모지 않는다.

다음 科目에 있어서는 行政學이 지적된 것은 當然하다. 또 기서도 經濟學이 계속 많이 지적되었으며 特記할 것은 外國語에 관한 知識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一部生의 경우 全員 英語의 實力이 있다고 생각되지 上 入學後에도 계속 外書를 독서하는 訓練을 할 必要가 크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

5. 結

(1) 業績을 낸 것

行政大法院에서 받은 教育을 몸에 지니고 行政機關에 나기 結果의으로 어떠한 業績을 냈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行政大法院을 卒業한 사람들이 어떠한 分野에서 業績을 낼 수 있으며 貢獻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後輩 學生들에게 만이 아니라 學校에서 教育 지도하는데도 有益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① 法令立案 ~5
- ② 計劃立案 ~4
- ③ 機構改編 ~3
- ④ 事務合理化 ~2
- ⑤ manual 편집 ~2
- ⑥ 經濟白書執筆 ~1
- ⑦ 國際會議參與 ~1
- ⑧ 新聞增面 ~1
- ⑨ 屢訴 ~1
- ⑩ 표본조사 ~1
- ⑪ 번역 ~1
- ⑫ 議員質問回答 ~1

이 結果를 통해서 學校에서 教育을 擔當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業績을 뚜렷이 낸 分野가 거의 새로운 改革的, 刷新的業務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行政大法院의 設立目的하고 一致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으며 이러한 點에서 계속 새로운 發展的 事業을 잘할 수 있는 能力의 양성에 努力함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2) 可能業務分野

質問의 趣旨는 行政大法院 出身으로서 어떠한 分野에서 일하는 경우 業績을 낼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알아 보고져 한 것이다. 여기서 얻어지는 答과 (1)의 業績을 낸 分野의 答을 合하면 行政大法院 卒業生의 擔當業務를 定하는데 도움이 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 ① 企劃 管理 ~12
- ② 人事關係 ~ 8
- ③ 制度改善 ~ 6
- ④ 一般行政分野 ~ 5
- ⑤ 組織管理分野 ~ 5
- ⑥ 英語實力 ~ 4
- ⑦ 法律문제 ~ 2
- ⑧ 調查分野 ~ 1
- ⑨ 經營學 ~ 1
- ⑩ 外書번역 ~ 1
- ⑪ 企業計劃制度 ~ 1
- ⑫ 行大院 同窓間 橫的 Organization을 通한 Inter-ministry의 업무 ~ 1

여기서도 多分히 새로운 일에 종사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약간 흥미 있는 것은 여기서도 人事分野가 비교적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現在까지 人事에 관해서 지적된 것을 보면 相互 矛盾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지적되는 것을 보면 하 界에 자주 關心의 對象이 됨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 다음은 역시 英語를 통한 能力發揮라고 볼수 있다.